

타산지석(他山之石)



한 장 혁

에드바이오텍 사장(COO)
수의사 / 본지 편집위원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또는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일본의 HPAI 대응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일본의 HPAI

일본은 사육 중인 산란계의 약 9%인 1,740만수의 닭이 살처분 매몰되어 매장할 토지조차 없다는 뉴스이다. 이는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덮친 일본에서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닭이 살처분 됐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지방 자치단체와 양계농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살

처분한 닭을 매장하고 있는데, 매장해야 하는 닭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매장할 토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닭을 묻기 위해 땅을 팠다가 지하수가 나와 매장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급히 다른 토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처분으로 변경했지만, 문제는 처분해야 할 닭의 수가 지자체의 예상을 넘어서면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실태”라고 덧붙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양계장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닭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것을 위생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각보다 매장을 더 권장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다 소각시설을 빌리는 등의 중간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 세계 79개국에서 가금류·야생조류 4,200만 마리가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고, 15,000만 마리가 죽었다. 이 기간 살처분된 가금류는 1억 9,300만 마리에 달한다.

2. 계란 값 폭등이 이은 식당 메뉴 실종

일본의 식당에서 계란이 들어간 메뉴들



이 사라지고 있다. HPAI 발생에 따른 피해로 인해 계란 가격이 6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계란을 유난히 좋아해 연간 1인당 337알을 먹는다. 1위인 멕시코(409알)에 이은 세계 2위로, 연간 270개를 소비하는 8위 한국인보다 67알이나 더 먹는다. 우동, 소바, 덮밥, 초밥 등 달걀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을 정도다. 도매가격 또한 67%이상 상승한 1kg당 350엔(약 3,5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나 올랐다. 1993년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3. 인체 감염 우려

조류 사이에서 인플루엔자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바다사자와 같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캄보디아 보건부에 따르면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11세 소녀가 지난 22일 사망했다. 소녀는 이달 16일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밀접 접촉자 12명 중 소녀의 부친만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H5N1 조류 인플루엔자의 변종 '2.3.4.4b'가 2014년부터 대표적인 철새인 오리에 감염되도록 진화한 것이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변종 '2.3.4.4b'는 2020년경 유럽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됐고,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철새가 미국 알래스카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철새가 서유럽으로 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했다.

4. 대책

유럽

2023년 2월 24일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허용하도록 규칙 변경하였다. 유럽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정 예방 접종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험 결과가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프랑스, 가금류 HPAI 예방 접종 전략 추구

조류 인플루엔자 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가금류 업계와 예방 접종 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농무부가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PAI) 예방 접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주 장관은 식품, 환경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ANSES가 가금류에서 HPAI의 미래 통제를 위한 국가 예방 접종 전략에 대한 최신 의견을 발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arc Fesneau 장관에 따르면 올해 가을 / 가을은 농장에 예방 접종을 적용하는 목표입니다. 그는 또한 백신의 첫 번째 주문에 대한 입찰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ANSES는 최신 보고서에서 예방 접종을 위한 세 가지 가능한 전략을 설명합니다. 백신의 가용성, 농장 유형 및 조류 종에 따라 이 기관은 프랑스 가금류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Fesneau는 오리 예방 접종과 관련된 실험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교육부가 예방 접종 캠페인에 충분한 공급품을 확보하기 위해 80 천만 회 분량의 백신의 초기 주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것이란 보도이다. 그 중에 거위의 사육으로 푸아그라 생산하여 수출하는 프랑스의 움직임이 가장 빠른 것으로 되어 있다.

5. 맺는 말

HPAI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각국에서는 축산업의 피해 뿐 만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인상, 매몰지 문제, 인체 감염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백신 정책으로 우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백신 접종군과 야외 감염군의 감별진단법의 확립과 봄철에 해소되는 HPAI 발생 위험이 끝난 후에 접종군(양성군)의 처리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농가와 방역당국의 노력에 감사함을 드리며 농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양계